

보도 일시	2022. 8. 22.(월)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8. 22.(월)
담당 부서 <총괄>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김정주 (044-201-2537)

경북 영주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8.22.)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확진됨에 따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주재로 환경부·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회의를 21시에 개최하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 약 500m 안쪽(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570-1)에서 발견되었다. 올해 7.7일과 7.28일에 약 14km 떨어진 단양군 영춘면에서 폐사체 2마리가 양성 확진된 바 있다.

* 최인접 발생: 1,686차(21.11.8. 확진) 영월군 김삿갓면 외릉리

영주 양돈농가는 37호이나 인접한 강원도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예천군에 103호의 양돈농가가 위치하고 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확산되면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경북에서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양돈농가 수: (영주) 37호 / (영월·단양·봉화·안동·예천) 103호

중수본은 인근지역으로의 확산과 양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 등 지자체 합동으로 차단 방역에 총력으로 대응한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오늘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생지점 중심의 수색과 포획 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를 저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영주시, 봉화군 수색반) 및 국립공원공단, 영주시의 합동 수색인력을 동원하여 소백산 국립공원과 주변지역의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발생지점 주변으로 야간 열화상 드론으로 파악된 멧돼지 서식지에 포획도구를 추가 설치(60대)할 계획이다.

※ 영주시의 경우, '22.1~8월까지 사전 집중포획을 통해 전년 동기 224마리 대비 2배 이상인 453마리 포획 실적을 거둠

또한 발생지점 주변에 긴급차단망 및 경광등·멧돼지 기피제 등 임시시설을 보강하고, 기존 설치한 광역 울타리(영주~봉화)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영주시 소재 전체 양돈농장 37호(87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사육 돼지의 감염여부 정밀검사와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에 즉시 착수(8.23.~31.)키로 하였다. 긴급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운영해서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 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해있는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단양시,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예천군 등 인근 5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즉시 발령(8.22.)하고, 농장별 지자체 담당관, 양돈협회 등을 통해 농가들에게 발생상황을 전파하였다.

영주시 인근 5개 시군의 모든 농장 내 돼지(183천여 마리)에 대해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을 통해 임상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한 후 방역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 및 주변 5개 시군(강원 영월, 충북 단양, 경북 봉화·안동·예천)의 양돈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에 공동방제단·시군 소독차량 등 20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하면서, “환경부는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추석 귀성객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중인 경기·강원·충북·경북의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붙임 1. 추석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

2. 영주시 양성 발생지점 현황 및 환경부 대응조치

담당 부서 <총괄>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김정주 (044-201-2537)
환경부	자연보전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팀 장	김지수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김원빈 (044-201-7492)





고향 방문시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방문 자제, 농장 출입통제 철저



벌초·성묘에 참여한 가족과 외부인은 농장 출입 금지

오염 우려지역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출입 금지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농장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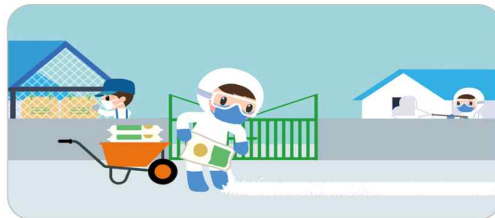
손 씻기, 신발 소독 반드시 준수



농장 출입 차량과 장비 사용 전후 세척 소독 철저



축산 관계자는 영농활동을 중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텃밭 경작을 하지 않도록 안내



매일 농장 주변 청소·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그물망(조류차단망) 등 방역시설 점검

가축질병 의심 신고전화 1588-9060 / 4060

붙임 2

영주시 양성 발생지점 현황 및 환경부 대응조치

